



외국의 사례 ②
경기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일본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현황

한속희*

1. 들어가며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에게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독서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있어서 독서와 독서환경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라고 하면 교양·취미·오락·연구·조사를 위하여 도서·책자·잡지 등에 활자로 인쇄된 저술을 읽고 거기에서 지식과 정보 혹은 문학적인 즐거움 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읽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중단하거나 앞으로 되돌아가거나, 건너뛰어 읽거나 할 수 있으며, 읽는 사람이 자유로이 이미지화 할 수 있으며 스크린에 비추어진 것도 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어른의 독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독서의 경우는 독서가 즐거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화나 이야기를 읽는 즐거움은 물론 학습을 위한 독서라도 해도 즐거움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요컨대 어린이 독서는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인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 독서의 교육적 의미가 있다. 모든 어린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책의 즐거움에 접해 볼 수 있는 환경으로서 마련된 것이 어린이 도서관이다.

여기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독립된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봉사의 장과 기능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은 어린이를 독서로 이끌고, 한사람 한사람의 어린이를 그 어린이에게 있어 가장 적합한 책으로 유도하며 따라서 어린이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준비하고 어린이가 그것을 적절히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

*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사서

을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본의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서비스와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여 미래의 어린이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다.

II. 어린이도서관의 역할

1. 어린이도서관의 역할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은 책과 도서에 대한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서관에 대한 친밀성을 가지게 하는 것, 이미 정평이 나있는 책, 어린이가 아직 모르는 훌륭한 책,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실제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언급하는 여러가지 서비스의 활동이다.

1. 1 플로워 워크(Floor work)

어린이도서관에 오는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책 대출과 상담을 행하는 일이다. 또한 어린이와 나누는 대화에서 어린이의 요구·흥미·독서경력 등 어린이를 이해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1. 2 이야기(Story telling)와 글 읽혀주기

이야기는 어린이를 독서로 이끌기 위한 어린이와 사서가 친밀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야기를 했을 때의 반응에서 어린이의 이해도를 이해하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는 실마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말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어휘를 늘릴 수 있으며,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 읽혀주기는 어른이 어린이에게 글을 읽어주는 것을 말한다. 읽혀준다고 해도 읽어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어린이와 함께 즐긴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1. 3 집회·행사

도서관에서 행하는 집회와 행사는 어린이의 독서를 활발히 하여 책과 도서관 이용이 친근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그 동기부여를 한다. 도서관 이용의 PR과 어린이에게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방학과 크리스마스의 어린이회, 영화회, 인형극, 손으로 만들어 보는 회(예, 수예, 꽃꽂이 등), 도서관 축제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어린이의 독서생활에 어린이도서관 직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어린이도서관 직원의 자질과 자세가 중요하다.

2. 어린이도서관 직원의 역할

어린이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함께 어린이를 충분히 아는 것, 어린이 책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어린이와 책을 연결 지워주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와 만나는 자세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사와 같은 태도나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을 크게 활용하여 개개의 어린

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계발시키는 조언자로서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도서관 직원은 어린이에게 책과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득케 하고 어린이를 책에 가까이 가게하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환기시키고 지속시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책을 주세요'라고 마음으로 호소하는 어린이의 손에 적절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건네줌과 함께 '날개를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어린이에게는 책의 세계에서 날개를 펴는 능력과 사회에 관한 이해력과 무한히 넓혀가는 상상력 등의 날개를 키워주는 조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의 조력이 없는 한 그러한 장서도 단지 책의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이와 책의 사이에서 양자를 이어주는 역할로 해서 비로소 그것이 살아 숨쉬는 것이 된다.

어린이와 책을 이어주는 것 그것은 정말로 도서관 직원의 최대의 특권이고 어린이 도서관이 존재하는 커다란 의의다.

III.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1. 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은 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누구라도 재미있는 책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여러 가지 그림책과 종이연극이 있다. 재미있는 책과 무서운 책 등 읽을 책이 많이 있으며 자신이 알고 싶은 것과 학교의 조사 학습을 위한

책도 많이 배열되어 있다.

◎ 이야기 교실

어린이자료실의 이야기 교실에는 매주 토, 일요일에 즐거운 이벤트를 하고 있다. 종이접기 놀이와, 여름방학에는 영화회도 있다. 이야기, 판네(화판)시어트, 그림책과 신연극을 읽는 모임도 있다. 어느 것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3세까지의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참가한다.



〈오사카부립도서관 어린이자료실내 이야기실〉

◎ 이야기 신분란코(しぶらんこ)

"이야기 신분란코(しぶらんこ)"는, 그림책을 가장 즐길 수 있는 3세~6세(미취학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모임이다.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림책 가운데의 그림과 이야기에서 자연과학의 세계를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감수성을 풍부히 해나간다.



〈이야기실에서의 모습〉

친근한 어른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가운데 자연의 불가사의, 인간의 온정, 위대함, 어리석음 등에 대한 감동을 공감할 수 있게 성장해 간다.

◎ 왕바쿠(わんぱく : 개구장이 문고)(시각장애 아를 위한 문고)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내의 「왕바쿠(わんぱく) 문고」 코너에는 점역된 아동서가 약 1,200 점 있다. 「왕바쿠(わんぱく) 문고」는 자원봉사자의 「눈이 보이지 않는 어린이에게도 책」이라고 하는 소망에서 시각장애아를 위하여 만든 코너이다.

점자책과 테이프의 대출 외에 정상아와 함께 콘서트, 이야기회, 즐김회, 크리스마스회 등의 행사를 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어린이라도 우송에 의한 대출과 지역도서관을 통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즐김회(おたのしみ회)

봄, 여름, 겨울방학에는 도서관에서 공작교실과 인형극 등의 즐김회(おたのしみ회)를 하고 있다.

◎ 견학과 실습

근처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시설 견학과 이야기회, 점자도서의 소개, 종합학습을 위한 조사, 대출 등의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2. 오사카부립국제아동문학관

1984년에 일본최초의 국제적인 아동문학연구·정보·자료센터로서 개관한 것이 오사카부

립 국제아동문학관이다. 만박공원의 일부분에 자리잡고있고 오사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자연에 싸여있는 곳이다.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주는 매력이 풍부한 문학관이다. 현관에 들어가면 곧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린이실이다. 개가도서는 약 2만책으로 실 전체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느껴진다. 대출서비스, 독서상담서비스, 이야기교실 등의 행사도 있고 어린이가 책과 만나는 장으로서 이상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어른에 있어서도 아동문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문학 무엇이든 상담코너에는 작가연구·작품연구·서지학적 연구등에 관하여 국내외로부터 연간 약 1,400건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용자는 아동문학연구자를 비롯하여 인문·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 작가, 화가, 교사, 학생, 문고관계자, 주부, 어린이, 아동문학연구소, 출판사, 대학, 대사관, 초·중학교, 유치원, 보육원, 기업,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의 보도기관 등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이 코너에는 어린이와 책의 만남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에 응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열람 서비스로서는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서고자료 및 개가되어있는 참고도서와 마이크로 필름을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실에는 독특한 「책의 섬」을 중심으로 매트코너와 테이블셋트를 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품에 친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따스한 날에는 옥외의 잔디에서 독서, 이야기, 종이연극 등을 즐길 수 있다. 시청각서비스도 있

고 이야기·노래 등의 CD나 테이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책 간행을 모두 전시하고 있는 코너도 편리하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강당과 세미나실에서 작가와 연구자에 의한 강연회 등이 풍성히 개최되고 있다.

VI. 어린이 도서관의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제안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어른도 어린이도 같은 카운터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도서관사서가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교대로 도서관직원이 교체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플로워워크(Floor Work)를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아동실과 아동코너, 아동서비스 공간을 명확히 설정한다. 이곳에서는 아동서비스 담당사서를 배치한다. 카운터가 1개 밖에 없는 경우는 아동코너에 전용책상을 마련한다. 전용책상에는 전문사서를 두고, 언제라도 플로워워크(Floor Work)가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공공도서관과 아동실의 설치상황을 보면, 2001년 4월 1일 현재, 공공도서관은 2,681관이다. 그 가운데 어린이실을 두고 있는 도서관은 2,377관으로, 88.7%이다.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공공도서관 736관 가운데 259관으로 35.2%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숫자의 추이부터 만으로도 아동서비스의 인식이 얼마나 낮았는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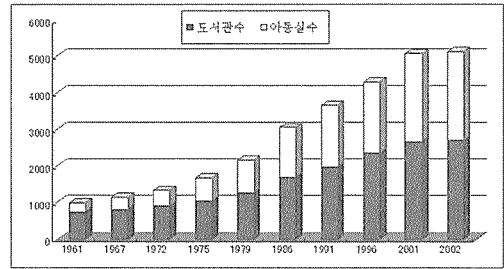


표1)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아동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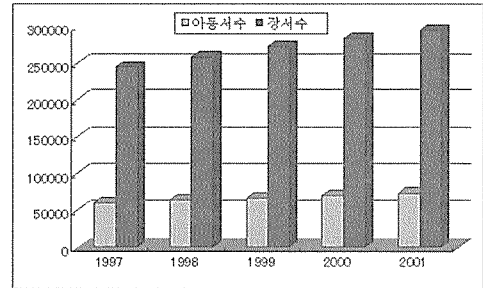


표2)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아동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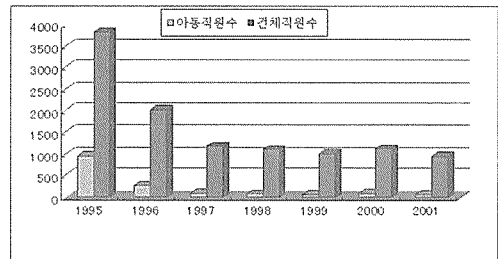


표3)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아동실 직원수

5년간의 상황을 표2에서 보면, 장서 수는 대체로 24%대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서는 거의 같다. 장서수의 증가에 대하여 아동서는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아동서비스담당자수에 대하여는, 표3대로 1995년에는 직원전체의 25.2%가 아동서비스 담당자였던 것이 2001년에는 6.2%로 격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소되고 말았던 말인가? 예산의 삭감에 의해 정직원을 감원하여

비상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교체하든가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책을 연결 지워주기 위해 행하고 있는 것도 축소된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이야기회 등을 자원봉사자에게 맡겨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범위에 걸친 전문지식과 숙련된 전문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도서관직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도서관 일의 이론과 실천과 새로운 경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짐과 함께 이용자로서의 어린이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도서관직원이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정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서관법에 사서의 필요성이 정해져 있어도 현재로서는 무자격의 도서관직원이 있는 실정이다.

사서로서의 자격이 없어도 도서관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의 아동도서관직원은 전문직원으로서의 커다란 기대를 어린이문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그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아동 도서관직원도 많다.

어린이책을 알고 어린이를 알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기술을 닦고,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진짜의 의미에서의 사서제도의 확립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V. 끝내며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전용의 공간,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 세심하게 고른 자료, 어린이의 심리를 담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도서관은 구속되는 것도 감시받는 것도 아닌 자신의 자유공간이어야 한다.

어린이의 책을 알고 어린이를 알고 이를 결부시키는 기술을 연마하고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서전문제도의 확립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小河内芳子. 1994. 『子どもの図書館の運営』, 日本図書館協會
2. 日本図書館協會兒童青少年委員會編. 2000. 『公立図書館兒童サービス實態調査報告1999』 日本図書館協會.
3. 図書館問題研究會. 「みんなの図書館」 No. 305 『兒童サービスの現在』.
4. 日本図書館協會. 「図書館雑誌」 Vol.96, No.11.
5. 日本図書館協會. 1998. 「兒童サービス論」 『JLA図書館情報學テキストシリーズ.11』.
6. ジュヌウイエ・ウ・パット. 1998. 「兒童書館論」 日本図書館協會.
7. 伊香左和子. 2002. 「兒童サービス論」 勉誠出版.